

근대적 ‘시간’관념과 문학의 존재방식

- 양건식의 <귀거래>를 중심으로

이 재 봉*

차 례

- | | |
|-------------------------|-----------------------|
| I. 들머리 | 1. 저널리즘의 시간과 문학의 유통방식 |
| II. 근대의 시간과 독자의 탄생 | 2. 시간성과 예술성, 근대문학의 운명 |
| III. 시간과 문학, 근대문학의 존재방식 | IV. 마무리 |

I. 들머리

1912년 11월 8일과 9일 『每日申報』에는 이진석(李鎭石)이라는 사람이 투고한 단편이 실려 있다.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남편을 막연히 기다리는 마흔 정도 나이의 중년부인과 아들 ‘복동’, 그리고 가족에게는 말 한 마디 없이 유학을 떠나 성공한 뒤에 귀국하는 남편(박서방)의 이야기가 그것이다. 근대적 지식의 획득 여부가 개인의 삶을 지배한다¹⁾는 내용만으로 본다면 이 작품은 당시 신문에 투고된 수많은 단편들과 차별성을 발견하기 어렵다. 그런데 정작 연구자

* 부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1) 이에 대해서는 줄고, 『간접적 근대체험과 서사의 화법』(『문창어문논집』39, 문창어문학회, 2002. 12.) 및 『근대적 욕망의 추구하고 서사화 방식』(『어문연구』41, 어문연구학회, 2003. 4.) 참조

의 흥미를 끄는 것은 작품의 이런 내용이 아니다.

동창이 촛촉 밝어지고 골목골목이 각색 장수 소리가 굿치지 안이 흐는데
목전에 또 근심 한 가지가 싱기니 이는 별 근심이 안이라 아침밥을 짓지 못
함이오, 밥을 짓지 못하면 복동이가 빈손으로 학교예를 갈 근심이라, 홀일업
시 우두커니 안져서 입맛만 다시는데 아릿뭉숨만 남아있는 니불 속에서 십
이삼세쯤 된 아희가 브시시 내려나며 눈을 썩썩 부비면서

어마니 몇 시나 되었습닛가. 아마 느것습지요. 오늘은 선성님이 어더를
가신다고 동모 학도들이 일주 학교로 모여서 남문 밖 덩거장으로 전별을 간
다는데요.²⁾

위의 장면에서, 어머니는 자연적인 현상으로 어림하여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반면 아들 '복동'은 몇 시인지를 확인하는 것에서 일과를 시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어머니에게는, 동창이 밝아온다는 자연 현상이나 아침 일찍 골목을 누비는 장사치들의 소리가 시간을 인식하는 기준이며 이를 통해 아침밥을 지어야 할 때가 되었음을 유추하는 것이다. 반면 복동은 그와 같은 외적 상황으로 시간을 인식하지 않는다. 지금이 '몇 시'라는 데서 보듯이 그가 시간을 인식하는 기준은 시계이다. 더욱이 복동은 지금, 시간을 맞추어서 출발하는 '기차' 또는 '철도'의 시간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그는 아침밥도 거른 채 역(驛)으로 뛰어가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근대의 시간은 '시계적 시간'이다. '시계적 시간'은 1년을 12개월로, 1개월을 30일로, 그리고 일주일을 7일로 분절하고 다시 하루를 24시간으로, 한 시간을 60분으로 다시 1분을 60초로 분절한다. 여기서 1분1초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나아가 '근대인의 삶 전체를 규제하는 일종의 시간적인 분절방식'³⁾이 '시계적 시간'이다. 따라서 근대인은 '배가 고평 때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시계에 맞추어 밥을 먹'고 '피곤할 때 자는 것이 아니라, 시계가 자라고 할 때 잠'을 자며 그렇기 때문에 '증기엔진이 아니라 시계가 현대 산업사회의 핵심

2) 『매일신보』, 1912년 11월 8일. 맞춤법은 그대로 두고 띄어쓰기만 오늘에 맞게 고쳤음. 이하의 인용도 마찬가지다.

3) 이진경, 『근대적 시공간의 탄생』(소명출판, 2002.), 59~60쪽. 여기에서 이진경은, 근대의 시간이 사람들의 활동을 특정한 방식으로 절단하고 채취한다는 점에서 '시간-기계'라고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기계'4)라는 언급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시계적 시간의 도입은 '철도'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5) 우리나라에서 철도는 1899년 9월 18일 경인선(노량진-계동포간 33.2km)이 처음으로 개통된다. 그리고 1905년 경부선, 1906년 경의선, 1914년 호남선과 경원선, 1931년 장항선, 1942년 중앙선이 잇달아 개통6)되면서 철도를 매개로 한 근대적 시간은 우리 삶의 한 가운데로 진입하게 된다.7) 그리고 태음력을 중심으로 생활했던 삶의 리듬 역시 근대적 시간에 맞춰지게 된다. 즉 개화기 이후 싹텄던 근대적 시간관념은, 1895년 태양력의 채택 및 7요일제의 도입, 그리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차 시간표의 제정(1899년 9월 16일자 『독립신문에는 당시의 기차시간표가 실려 있다), 1908년 제정된 독자적인 표준시 제도와 1912년의 한국표준시 폐지 및 일본표준시의 적용8) 등을 거치면서 우리의 삶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게 된다. 이제 근대적 시간을 조선인의 삶을 근원에서부터 변화시키는 기계로 작용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시계적 시간의 도입은 문학환경에도 근본적인 변화를 불러온다. 문학이 인간 삶을 형상화하는 것이고, 다른 예술장르에 비해 사회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예술형식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시간관념의 형성과 삶의 변화에 따른

- 4) L. Mumford, *Technics and Civilization*(London:Routledge & Kegan Paul, 1934), 여기서는 C.J. Whitrow, 이중인 역, 『시간의 문화사』(영림카디널, 1999.), 265쪽에서 재인용.
- 5) 물론 근대적 시간관념이 철도와 함께 형성된 것은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니다. 13세기 말 시계가 발명되고 18세기 영국에서 우편마차제의 도입 및 철도의 부설은 전국을 한 단위로 묶는 표준시간제의 도입을 불가피하게 했고 이런 현상은 유럽은 물론 미대륙까지 확산되었다. 나아가 각기 다른 여러 나라의 시간을 통일된 방식으로 통합하기 위하여 그리니치 천문대를 중심으로 한 표준시간(GMT:Greenwich Mean Time)이 20세기 초에 제정되어 시행된다. 이에 대해서는 C.J. Whitrow, 앞의 책, 256~272쪽 참조.
- 6) 철도의 역사는 철도청 홈페이지 <http://www.korail.go.kr/2003/100th/year/index1.html> 참조.
- 7) 물론 우리나라의 철도는 일본제국주의 식민지 경영의 핵심사업으로 추진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철도건설과정에서 수많은 부작용과 식민지적 폭력을 낳았다. 이에 대해서는 박천홍, 『매혹의 질주, 근대의 횡단』(산처럼, 2003.), 80~103쪽 참조.
- 8) 이상의 내용은, 박천홍, 위의 책, 318~331쪽 참조.

문학의 변화는 애초부터 예비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거기에는 근대문학이 시간의 지배를 받는 저널리즘과 불가분리의 관계이기 때문에 문학의 존재방식 또한 근대적 시간의 통제 아래 놓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글은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시작한다. 그리하여 근대적 시간이 문학을 어떻게 통제하고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게 하는가, 또 근대문학이 필연적으로 떠안게 되는 특징적인 모습은 어떠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II. 근대의 시간과 독자의 탄생

근대에 이르러 기계적 시간이 적극적으로 도입되고 인간의 사고와 행위를 제어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근대 자본주의의 발전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중세시대부터 상인들은 교역의 필요성 때문에 어디서나 통용되는 그들만의 통일된 시간을 필요로 하고 있었고 산업혁명 이후 등장한 철도와 우편을 비롯한 근대적 제도 역시 표준시간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었다. 지역마다 시간이 다를 경우 기차의 운행에 막대한 혼란을 초래하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영국을 중심으로 한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통일된 표준시를 제정하게 되었고 이것이 세계 각국으로 번져가게 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표준화된 시간은 근대적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한다. 공장노동자들의 출퇴근 시간 기록기가 보편화되고 ‘독재자’라는 상품명의 시계까지 등장하여 시계적 시간의 도덕적 우월성을 강조하기에 이른다.⁹⁾ 뿐만 아니라 시간의 중요성은 학교를 통해서도 집중

9) 로버트 레빈, 이상돈 역, 『시간은 어떻게 인간을 지배하는가』(황금가지, 2002.), 104~106쪽. 여기에 따르면 19세기 말 당시 시계회사들의 광고 및 판매전략은 시계시간 그 자체가 지니고 있는 우월성, 즉 쉬지 않고 정확하게 움직이는 성실성을 내세우는 것이었다고 한다. ‘독재자’라고 이름 붙여진 이 시계를 생산한 회사는 ‘인생에서 성공을 원하는 사람이 길러야 하는 한 가지 미덕은 시간을 엄수하는 것이고, 범해서는 안 될 실수는 시간에 늦는 것’이라 주장하며, ‘독재자’가 시간을 표준화하고 감독자들에게는 눈이 닿지 않는 곳까지 규율의 힘이 미칠 수 있게 한다고 선전했다고 한다. 이와 같은 시간 통제 시스템이 극단화되면 테일러주의에서 산출하는 ‘동작’의 목표시간을 제시하는 데까지 나아간다. 즉 ‘서류를 찾지 않고 서류함을 열고 닫는 데 0.04초, 책상 가운데 서랍을 여는 데 0.026초’

적으로 교육된다. 이는 학교가 근대산업사회에 알맞은 인간형을 길러내는 곳이라는 인식 때문인데, 시간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해 불과 5분 늦었기 때문에 대형 철도 사고를 일으킨 기관사 이야기¹⁰⁾ 등의 충격적인 내용을 학생들에게 주입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시간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그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공장보다는 학교를 통해서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일제의 식민지 통치 전략이 농업중심이었다는 점¹¹⁾, 그리고 근대적 공장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 노동자 인구가 그리 많지 않았다는 사실에서 연유한다.¹²⁾ 한편으로 근대지식에 대한 열망은 점차 늘어갔고 그 결과 1910년대 이후 보통학교 취학률은 계속해서 증가한다¹³⁾. 물론 근대식 학교는 시간표에 따라 학생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교육이 이루어진다. 여기서 1890년대 아펜젤러가 설립한 배재학당의 편제와 시간표를 살펴보자.

자료에 따르면 배재학당의 입학연령은 17세 이상이고 수학기간은 4~5년으로 설정되어 있다. 그리고 한 달을 주기로 월사금(매월 3냥, 학비가 없는 학생의 경우 일을 시켰다고 한다)을 거두었으며 일년에 두 번 정기적으로 시험을 친다. 그리고 한 달 이상 결석자는 제명(除名)하고 중대한 과실을 범한 자는 퇴학(退學) 처분하며 교과목으로는 성교(聖敎), 영어독본, 영문법, 한문, 수학, 기하, 지지(地誌), 한국역사, 화학, 물리, 체조, 위생 등이 개설되어 있다¹⁴⁾. 그리고

등으로 능률의 가치와 시계 시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자 하는 것이다.(같은 책, 109쪽 참조)

- 10) 위의 책, 106~107쪽 참조.
- 11) 물론 농업생산물의 유통도 철도 등의 제도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 역시 근대적 시간의 통제 속으로 들어오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 12) 일제강점기에 근대적 의미의 공업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된 시기는 1930년대라 할 수 있다. 1920년대까지 일제는 공업화 정책에 소극적이었는데 1930년대 들어 일본의 독점자본과 군수공업이 크게 진출하면서 공업부분이 급속하게 확장된다. 물론 이는 전쟁과 관련된 군수제품과 섬유제품의 현지조달이 가장 큰 목적이었기 때문이다. 이 시기 공업화와 공장 및 노동자 수는 강이수, 『공장체제와 노동규율』, 김진균·정근식 편저 『근대주체와 식민지 규율권력』(문화과학사, 1998.), 117~169쪽 참조.
- 13) 김진균·정근식·강이수, 『일제하 보통학교와 규율』, 김진균·정근식 편저, 앞의 책, 81~82쪽 참조.
- 14) 馬越 徹, 『韓國近代大學の成立と展開-大學モデルの傳播研究』(名古屋大學出版會,

학생들의 학교생활은 대체 15분 단위로 분절되어 있어 근대적 시간체제를 받아들이는 통로로 작용한다.¹⁵⁾ 그리고 이와 같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 개인의 삶이 결정된다는 사고를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시간을 분절하고 중시하는 이런 모습은 당시의 작품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방정환이 ‘스승’이라는 필명으로 『청춘』13호에 발표한 <牛乳配達夫>와, ‘스승’이라는 필명으로 『唯心』3호에 발표한 <苦學生>은 두 작품 모두 현상 문예 응모작품이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으면서 각각의 주인공 ‘오기영’과 ‘창호’가 같은 인물로 생각될 정도로 유사성이 많은 작품이기도 하다. 이들은 우유 배달을 하면서 고학을 하는 가난한 학생들로 새벽 네시가 못되어 일어난다. 그리고 오전 일곱시 경에 우유배달을 끝내고 목장으로 돌아와 식은 아침밥을 먹고는 학교로 간다. 그리고 학교에서 피곤한 몸으로 여섯 시간 공부를 한 후에 다시 목장으로 돌아와 복습을 하거나(<牛乳配達夫>의 오기영) 목장의 잔심부름을 하고 저녁 후에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교과서 외의 책을 읽고는 잠자리에 든다. 이들은 이처럼 잠시도 쉬지 않고 주어진 시간을 쪼개어 열심히 면학정진하는 인물들이다.

이들이 시간을 이렇게 아끼는 것은 지나간 시간은 다시 오지 않는다는 근대의 직선적 시간관에 충실하기 때문이다. 시간은 끊임없이 대등하게 대립하며 되풀이된다는 고대의 시간관¹⁶⁾이나 계절적 리듬에 종속되는 농경사회의 순환

1995.), 28쪽의 도표 참조.

15) 배재학당의 교칙에는 ‘제3. 등교 시간은 오전 8시 15분으로 11시 30분까지이며, 오후는 1시에서 4시까지로 하되(……), 제21. 아침 식사는 8시에 마치고, 점심은 11시 45분, 저녁식사는 6시에 마친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한다. 박천홍, 앞의 책, 325~326쪽.

16) 마키 유스케는 원시시대의 시간관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과거가 ‘깊이를 갖지 않고’ 모든 과거가 과거로서 대등하게 현재에 대립하는 세계에서, 가령 지금이 ‘낮’이라면 모든 ‘밤’은 서로 대등하게 과거로서 현재에 대립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모든 ‘낮’은 ‘밤’과 대립하는 시(時)로서 되풀이하며 존재한다.

마키 유스케, 최정옥·이혜원·박동범 역, 『시간의 비교사회학』(소명출판, 2004.), 22쪽.

이와 같은 시간관에서 현재와 과거는 구분되지 않으며 모든 과거는 현재와 뒤섞여 있다. 따라서 근대의 진보적 시간관도 나타날 수 없다.

적 시간관¹⁷⁾에서는 과거와 미래는 서로 대등한 의미와 길이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근대의 직선적 시간관에서 과거란 다시 오지 않는 것이며 시간은 언제나 미래를 향해 내달리고 있다. 따라서 현재나 과거보다 미래가 더 큰 의미를 지니며 현재보다 '발전'된 미래를 위해 시간을 아껴야만 하는 것이다.¹⁸⁾ 이와 반대로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은 죄를 짓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근대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도태될 수밖에 존재라는 인식 역시 당시의 문학을 비롯한 근대 담론에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기도 하다.

학교에서의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근대적 독자가 형성된다.¹⁹⁾ 근대의 문학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문자를 해독할 수 있는 사람의 수가 증가해야 하고 나아가 이들이 독자층으로 편입될 수 있어야 한다. 실제로 개화기 이후 근대문학의 독자들이 이들 지식인이었음은 여러 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김기전, 주요한 등은 『매일신보』에 연재된 이광수의 《無情》을 읽고 그 독후감을 같은 신문에 발표하고 있다. 특히 김기전은 《무정》을 두고 '우리의게 다시 업

17) 이진경, 앞의 책, 36쪽. 뿐만 아니라 해를 나타내는 '년(年, トシ)'이라는 한자어는 원래 벼의 수확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한다. 그 해의 수확이라는 의미에서 쌀의 수확을 '년(年, トシ)'이라고 읽은 것이 아니라 벼의 수확이 한번 있는 것을 하나의 '년(年, トシ)'이라고 읽었다는 것이다. 마키 유스케, 앞의 책, 78쪽.

18) 이와 같은 시간의식은 초기 기독교에서 비롯된 것이다. 초기 기독교와 유대인들은 시간의 선형론을 믿었고, 그들의 시간은 '신성한 천지창조에서 시작하여 신의 목적이 궁극적으로 완성되기까지 직선으로 흐르는 과정이며, 그 과정의 끝은 이 곳 지상에서 신의 선민인 이스라엘이 최종적으로 승리를 거두는 것'(G.J 휘트로, 이중인 역, 앞의 책, 93~95쪽)이다. 그러나 "아프리카나 그 외의 제3세계가 기독교적 미래의식을 도입했을 때, 곧장 구체적인 메시아를 기다리는 운동이 촉발된 것도 이들 세계에서는 '미래'가 본래 아주 짧은 사정거리밖에 가지지 못하고 동시에 잃어버린 구체성으로서의 과거를 대체할 만한 것"(마키 유스케, 앞의 책, 69~70쪽)이라는 지적에서 보듯이 미래를 지나치게 낙관적인 것으로 파악할 수 있는 위험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즉 60년이 주기라는 우리나라의 예에서 보듯 미래의 사정거리 역시 그만큼 사정거리밖에 가지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근대의 조급성은 여기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19) 사실 근대적 '독자'의 문제는 간단하게 언급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는 당시 학교의 제도 및 편제, 졸업생의 진로 등을 따져야만 실증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독서방식의 변화 등도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렇지만 이 논문에서 이를 모두 따지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 따라서 근대 독자의 형성 문제는 과제로 삼아 따져볼 생각이다.

는 교훈'이며 따라서 독자들은 '시 결심을 잊어 맛당하고 시 목덕을 덩해 맛당하고 시도덕을 알아 맛당'²⁰⁾하다고 하여 당시의 기대지평을 엿볼 수 있게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매일신보』의 한 논설에서는 작가와 독자가 상호 임무를 연대하였다는 인식을 보여 줌으로써²¹⁾ 근대적 독자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근대지식인들은 저널리즘의 형성에서도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도 하다. 우리나라 신문의 탄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박영효와 그에게 위임받아 신문발간기구인 박문국을 설치한 유길준 등만 보더라도 저널리즘에서 근대적 지식인들의 역할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또한 독립신문을 주도한 서재필, 그리고 배재학당에서 발간한 『협성회회보』²²⁾ 등도 그 좋은 예가 된다.²²⁾ 그리고 고학으로 성공하여 '三年이 지난 後에 新聞이나 或 雜誌에서 자 조' '姓名을 보'게 된 '高學秀'²³⁾라는 표현에서도 지식인과 저널리즘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근대문학은 이와 같은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것을 과제로 안고 출발하는 것이다.

20) 같은 글.

21) “문장은 원래 타에 독케 하기 위하여 작함이오니 작가의 독함에 자기 위하여 작함이 아니라 혹은 다소 술회적의 작도 유하나 차역 전연히 독자를 안중에 불치하는 문장은 기회로도다. 고로 약정력을 치하여야 문을 작함으로써 작가의 의무라 하면 정력을 치하여야 문을 독함으로서 독자의 의무라 위치 안이치 못홀지니 작가와 독자는 자연히 상호적 의무를 연대하였스즉” 『日曜講壇, 作者와 讀者』, 『每日申報』, 1916. 10. 18.

22) 이에 대해서는 정진석, 『한국언론사』(나남, 1990.), 36~46쪽 및 158~180쪽 참조.

23) 이상춘, <두 벚>, 『청춘』10, 113쪽.

Ⅲ. 시간과 문학, 근대문학의 존재방식²⁴⁾

1. 저널리즘의 시간과 문학의 유통방식

기계적으로 구획된 시간은 근대적 삶과 문학에 새로운 바탕으로 자리잡는다. 그래서 '월급쟁이'가 소설에 나타나고²⁵⁾ '오늘도, 뭇뚱에 또 팔리어 갔다 왔'²⁶⁾ 다는 자의식이 짝뜨기도 한다. 그렇지만 근대적 시간은 이같은 자의식의 형성에만 관여하는 것은 아니다. 신문과 잡지 등 근대 저널리즘은 문학의 지형에도 근본적인 변화를 예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신문이나 잡지에 문학작품이 게재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말부터이다. 조남현 교수의 조사에 따르면, 1896년과 1897년에 걸쳐 『한성신보(漢城新報)』에 실린 <신진사문답기(申進士問答記)>, <기문전(紀文傳)> 등 17편의 작품이 게재된 것을 시작으로 근대 저널리즘과 문학은 본격적인 관련을 맺게 된다. 그리고 1910년 이전까지 『한성신보』에 19편(1896~1897년 17편, 1902년 1편, 1904년 1편), 『대한일보』 6편, 『대한매일신보』 7편, 『태국신문』 12편, 『대한민보』 11편, 『경향신문』 50여편 등 도합 123편 정도가 신문에 발표되었으며, 『조양보(朝陽報)』, 『태극학보』, 『대한자강회월보』 등 17가지 정도의 잡지에 50편 정도가 실려 있다고 한다.²⁷⁾ 뿐만 아니라 1910년대 발간된 40 여종의 잡지 또한 대부분이 문학작품을 게재하고 있다.²⁸⁾ 또한 1910년대 거의 유일의 신문

24) 여기서는 '존재방식'이라 하여 문학작품이 지닌 철학적, 인식적 부분까지 문제삼은 것은 아니다. 다만 근대의 기계적 시간의 도입과 함께 문학이 처한 상황과 그로 인해 감당할 수밖에 없는 특성을 '존재방식'이라는 용어로 포괄하고자 하였다.

25) 백대진, <呼號薄命>, 『신문계』, 1915. 8., 여기서는 김복순, 『백대진 소설자료』, 『1910년대 한국문학과 근대성』(소명출판, 1999), 529~532쪽 참조. 이 작품에서 숙자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 東京高等女學院을 졸업했지만 부모의 사후 남편 문환이 사업에 실패하고 큰 병이 드는 바람에 부인잡지사에 취직하여 15원 월급으로 생활하고 있다.

26) 백대진, <良人の祈禱>, 『半島時論』 6, 1917. 9., 김복순, 앞의 책, 594쪽. 이 작품의 '경슈' 역시 월급쟁이다. 그는 부인을 잃고 병든 노모를 포함한 다섯 식구를 몇 푼 안되는 월급으로 근근히 봉양하고 있다.

27) 조남현, 『한국 근대소설 형성 과정과 작가의 초상』, 구모룡 외, 『현대 한국문학 100년, 20세기 한국문학 어떻게 볼 것인가』(민음사, 1999.), 57~60쪽.

이었던 『매일신보』 역시 현상모집을 실시하는가 하면 연재소설을 실어 문학의 장을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이제 문학의 생산 및 소통의 장으로 근대 저널리즘 매체가 중요하게 자리매김 했음은 물론 정해진 시간까지 작품을 완성하고 신문이나 잡지에 보내야만 ‘문학’으로 존재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1915년 8월에 발간된 『불교진흥회월보(佛敎振興會月報)』 제1권 제6호에 실려 있는 <귀거래(歸去來)>라는 작품은 아주 흥미롭다. 백화 양건식의 이 작품에는 ‘一.作者, 二.編輯長, 三.活版職工, 四.批評家’라는 표제 아래 소설의 창작과 유통과정이 소략하게나마 제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一.作者’에서는 남편이 작품을 구술하고 아내가 그것을 받아쓴다. 그리고 작품이 마무리 된 후 작자와 아내는 그 작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의견을 주고 받는다. ‘二.編輯長’에서 작자는 잡지사의 편집장 앞에 서서 작품의 내용을 확인받고는 게재를 허락받는다. ‘三.活版職工’에서는 이 작자의 작품에는 어려운 글자가 유난히 많은 직공의 불평이 나타나고, ‘四.批評家’에서는 신문기자의 간단한 작품평이 실려 있다.

아쉬운 것은 이 작품의 말미에 ‘미완’으로 표시되어 있으면서 이어지는 작품은 찾을 수 없다는 점이다. 양건식은 어쩌면 잡지가 일반에 배포된 이후 독자들의 반응을 염두에 두고 이를 소설화하려고 생각했던 것은 아닐까? 실제로 작품의 서두에서 작자와 아내는 당시 조선의 독자들이 작품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기도 하다. 이 추정이 옳다면 <귀거래>는 당시로서는 좀체 접하기 어려운 획기적인 작품이 될 수 있었을 법하다. 물론 작자에서 비평가에 이르는 내용만으로도 우리 근대문학에서 소설의 창작 및 유통과정을 소설화한 첫 번째 작품이라는 평가를 내리기에는 손색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뒤에서 언급하겠지만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작자의 자의식 또한 간과하기 어려운 문제의식을 제기해 준다.

우선 이 작품에서 우선 저널리즘과 문학의 특징을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편집장과 작자’의 관계에 주목해 보자.

28) 자세한 내용에 관해서는 김근수, 『武斷統治時代의 雜誌概觀』, 『韓國雜誌概觀 및 號別目次集』(한국학연구소, 1988.), 111~172쪽 참조.

二. 編輯長

二層 樓上 八疊室에 南窓을 向하야 四仙床을 놓코서 編輯長이 原稿를 갖다 窺코 一이 閱覽을 하야 나아가며 그 마즌 便에 안즌 스톱더러 『그런디 小說 다 되얏소』

『네 다 되얏세오. 보십시오.』 하며 어제 그 作者는 原稿를 너여 압헤 놓는다.

編輯長은 집어들고 보며 우스면서 『題目이 異常히 구려. 그리 무슨 뜻이 오. 아모러던지 佛敎에 當흔 말이지』

作者는 어름어름 흥는 듯이 『네 佛敎敎理에 當흔 말이오.』

編輯長은 內容이 엇더흔 것은 보지도 안코 『그러면 잘 되얏소. 어서 그러면 原稿를 整理하야 오늘 안으로 드려보니게 하시오.』

作者는 이 말을 듯고 原稿를 蒐集하야 冊을 밋히면서 編輯長을 치어다보며 『이번 月報는 材料가 썩 豊富하오이다』 編輯長은 滿足흔 듯이 『月報야 이만하면 붓그러울 것 업지』²⁹⁾(강조-인용자)

여기서 보면 소설 원고의 마감일은 ‘오늘’이다. 작자는 마감일에 맞추어 작품을 완성하고 잡지사로 가져온 것이다. 신문이나 잡지로 대표되는 근대 저널리즘은 발행 날짜가 정해져 있고 따라서 문학의 창작이란 이 시간 안에 이루어져야만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작자는 작품을 발표할 기회를 거의 잃어버리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작자는 늘 시간에 쫓기게 된다. 이같은 사실은 근대문학의 생산방식이 저널리즘의 시간에 적용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고소설의 생산 및 유통 방식에 견주어 보면 그 특징이 더 선명하게 나타난다. 고소설의 생산은 몇몇 작품을 제외하고는 뚜렷한 작가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민중의 설화 등이 바탕이 된 집단 창작의 문학이다. 그러나 신문이나 잡지 등에 실린 작품의 경우 개인의 창작을 전제하지 않고는 생각하기 어려우며, 이 때문에 근대에 이르러 ‘문사’가 아닌 ‘작가’가 형성되어 간다고 할 수 있다. 물론 1890년대에서 1910년에 걸쳐 발표된 많은 작품이 무서명으로 되어 있어 작가를 추정하기 어려운 점은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는 ‘작가’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발견될 수 있는 현상으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1890년대까지는 무서명이 지배적인 현상이었고, 1900년대 신문계제 소설에서는 무서명과 필명 제시가 공존하였으며 1900년대 후반 애국계몽잡지의 소설에서는

29) 양건식, <귀거래>, 『불교진흥회월보』, 1915. 8, 56쪽.

필명이나 본명 제시가 지배적인 현상으로 나타난다는 사실³⁰⁾은 이를 증명한다 하겠다. 또 18세기 이후 고소설의 특징적 유통방식을 ‘방각본’이라 볼 때, 작품의 선택은 온전히 민간 업자의 몫이었고 그 과정에서 소설적 흥미나 상업적 목적을 위하여 내용을 축약 또는 부연할 가능성은 언제든지 열려 있다.³¹⁾ 그리고 이렇게 방각된 소설은 ‘세책가(貰冊家)’ 등을 통해 부유층 여성을 주된 독자층으로 삼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방각의 저본으로 선택되는 작품은 이미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검증된 작품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처음 창작된 소설이 방각본으로 등장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³²⁾는 지적에서 보듯 안정적으로 이윤을 추구할 수 있는 작품들이 방각되었고 이들은 비교적 오랜 기간에 걸쳐 유통된다고 볼 수 있다. 즉 서로 다른 곳에서 방각되었다 하더라도 그 작품들의 목록³³⁾에서 유사성을 더 많이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유통기간이 길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근대소설의 유통과정은 이와 다르다. 한번 발표된 작품은 번개 가능성이 없을 뿐 아니라 신문이나 잡지에 실린 작품의 경우 유통주기가 대단히 짧다고 할 수 있다. 신문의 경우 짧게는 하루에서 길게는 열흘을 넘기기 어렵다³⁴⁾. 잡지 역시 한두 달을 넘기기 힘들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문학 작품은 이 짧은 시간 안에 독자들의 관심을 끌어야 하고 이 기간 안에 소비되어야 하는 운명을 타고났다고 할 수 있다. 신문이나 잡지에 발표될 당시에 독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한 작품이 단행본으로 출간된다고 하더라도 더 큰 관심을 끌기

30) 조남현, 앞의 책, 57~61쪽 참조.

31) 이에 대해서는 史在東, 『古小說 板本の 形成・流通』 및 李昶憲, 『京板坊刻小説의 商業的 性格과 異本出現에 對한 研究』, 한국고소설연구회 편, 『古小說의 著作과 傳播』(亞細亞文化社, 1994.) 참조.

32) 유영대, 『완판방각본 소설의 서지와 유통』, 한국고소설연구회 편, 앞의 책, 299쪽.

33) 이에 대해서는 한국고소설학회 편, 앞의 책, 二部, 판본문제에 실린 논문들 참조.

34)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인 『漢城旬報』는 열흘을 주기로 했다. 그리고 최초의 민간 신문이었던 『독립신문』은 애초 격일간이었다가 1898년 7월 1일부터 일간지로 전환된다. 그리고 최초의 일간지는 배재학당에서 1898년 1월 1일 창간한 『협성회회보』였으며 이는 『미일신문』으로 이어진다. 20세기에 들면 많은 신문이 발간된다. 이에 대해서는 정진석, 앞의 책, 144~249쪽 참조.

는 사실상 힘들겠기 때문이다. 이런 점 때문에 비평가나 광고의 역할이 증대된다.

四.批評家

月報를 發行하는 날 批評 兼 新刊紹介 해야 달리고 一卷式을 먼저 各 新聞社로 보내었다. 各 新聞社 編輯局에서는 月報는 等閒히 보는지 批評 兼 紹介는 文學의 素養이 있는 批評家(或 批評家라 假定하고)의 손으로 넘기지 안이하고 거의 다 三面記者가 走馬看山으로 흔 番 보고 生覺나는 대로 아모런것는 當坐에 判斷해야 써 寫는 故로 흔히 紹介便으로 쓸니고 批評은 업서 그 中에 絶倒할 것도 만권이와 모다 千篇一律이라 可觀의 일도 만흔 것이다.

八月十八日 어느 新聞紙上에 五號 鑄字로 左와 같은 紹介批評이 나더라.
新刊紹介

●○○○○月報 ○月十五日 第○卷 第○號를 發行하였는디 佛門法諦와 僧家沿革을 可히 一覽瞭然케 해야 斯家の 珍重할 만한 者 多흔 中에 特히 ○○居士의 論說과 ○○散人의 敎理와 ○○의 雜俎는 吾人의 一讀價値가 確有하고 ○○의 小説은 姑히 圓熟흔 境에는 到達치 못하였스는 近來 嘔吐噴飯할 小説이 雜出하는 此時의 一頭地를 超出흔 作이라 可謂 하겠더라.(發行所 京城府 ○○洞 ○○○○本部 定價 郵稅共金 ○○錢)(未完)³⁵⁾

위의 인용문에서는 잡지가 발간된 뒤 비평가 또는 기자의 역할을 언급하고 있다. 물론 여기서 '작자'는 비평가(또는 기자)에 대해서 불만 가득한 목소리를 내고 있긴 하지만 이것이 소위 비평무용론과는 거리가 있는 것임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오히려 문학적 소양이 있는 비평가의 성의있고 꼼꼼한 비평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 작품이 발표될 1915년 당시 전문적인 근대비평이 성립되었다고는 보기 힘든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구한말부터 계속되어 온 '문학'에 관한 여러 논의들과 1910년대 들어 이광수, 최두선, 백대진, 안확, 현상윤 등으로 이어진 다양한 근대적 문학담론이 위와 같은 인식을 가능하게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작자'의 바람대로 전문적인 비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비전문적인 기자에 의해 소개된 위의 기사는 사실 광고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소설에 대한 간략한 언급은 물론 잡지의 다른 읽을 거리와 가격까지 안내되어 있기 때문이다.

35) 양건식, <귀거래>, 『불교진흥회월보』, 1915. 8, 57쪽.

이처럼 광고가 동원되는 것은 발행날짜가 정해져 있는 저널리즘의 속성상, 이어지는 신문이나 잡지가 발간되기 전에 독자들에게 읽혀야만 하기 때문일 것이다. 1900년대 당시의 광고에서 서적광고가 가장 많았다는 지적³⁶⁾이나 『독립신문』에 실린 광고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서적광고가 2위에 해당한다는 사실³⁷⁾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1910년대의 『매일신보』는 서적광고 뿐 아니라 새로운 작품이 연재되면 안내광고를 실었으며³⁸⁾ 『학지광』 4호에는 『청춘』 광고가 실려 있다. 또한 『청춘』 12호에는 최남선이 번역했다는 <불상한 동무>가 광고되어 있고 ‘時下好評書類’라는 제목 아래 열두 가지 종류의 책들이 소개되어 있기도 하다. 광고는 이제 문학의 존재에 없어서는 안될 필수적 요소로 등장하는 셈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유통방식 또한 본질적인 변화를 겪는다. 고소설의 방각본이 부부상 등에 많이 의존했다면, 근대문학의 유통은 우편제도와 철도에 의존한다. 일본의 상황이지만 이효덕의 다음과 같은 언급은 경청할만하다.

신문잡지와 서적류 그리고 보도의 즉각성을 생명으로 하는 신문이 광범위한 지역에 유통되려면, 대량 인쇄와 고속 인쇄를 할 수 있는 인쇄기술과 그것을 수용하기에 충분한 수의 독자, 나아가 신문을 신속히 운반할 수 있는 유통과정이 정비되어 있어야만 한다. 우리는 어떤 장소의 물건도 쉽사리 손에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의식하기 어렵지만, 신문 잡지 및 서적류 등은 운반을 필요로 하는 물품이므로 그것을 운반하려면 일정한 유통경로가 필요하다. 그러나 메이지 초년에는 그러한 경로가 충분히 성립되어 있지 않았다. 거꾸로 말하면 전국 규모의 근대적인 교통망과 유통과정의 발달에 의해 근대 저널리즘이 성립되었던 것이다. 또 교통의 발달은 단순히 물품의 유통성과 소통성을 높이는데 그치지

36) 徐光云, 『韓國신문소설사:1889~1970』(해돋이, 1993.), 39쪽.

37) 정진석, 앞의 책, 289쪽.

38) 예를 들어 『매일신보』~1911년 1월 13일자에는 ‘新小説世界奇譚’이라는 광고가 실려 있다. 그리고 역시 『매일신보』~1912년 7월 5일자에는 ‘新小説豫告’라 하여 <巢鶴嶺>이 끝나면 <鳳仙花>가 연재되는데 ‘이 소설을 못 못 보시면 세상 천만 가지지미 중에 첫손가락 꼽을 만한 한 가지를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않고 사회구조, 나아가서는 개인의 사회적 경험에까지 보다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하게 된다.³⁹⁾

우리나라의 경우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근대적 우편제도가 시작되기 전에 발간된 『한성순보』의 경우 행정조직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그렇지만 이후 철도망이 건설되면서 우편제도 등을 통해 『대한매일신보』는 각 지역에 지사를 둘 수 있었고 이들에게 신문의 배급 및 대금수금 등의 일체 업무를 담당케 했다. 또한 『독립신문』 역시 독자들의 인기를 바탕으로 전국으로 퍼져 나갔으며, 이와 같은 현상은 마침내 '종람소'의 설치로 이어진다. 종람소는 여러 종류의 신문이나 잡지를 특정 장소에 구비해 두고 원하는 사람이 와서 유료 혹은 무료로 읽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1902년 한성(漢城)을 시발로 1900년대 말경에 이르면 여러 지역에 신문잡지종람소가 생겨난다.⁴⁰⁾ 그 결과 보다 많은 사람들이 신문과 잡지를 접할 수 있게 되었고, 문학 역시 이런 공간이 중요한 유통 경로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이렇게 보면 근대문학의 유통 역시 철도가 닿는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신문이나 잡지를 읽기 위하여, 그리고 그 속의 문학 작품을 읽기 위하여 기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상상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다. 《무정》이 실린 『매일신보』를 보기 위하여 이십리 길을 뛰어 갔다⁴¹⁾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들은 간 곳은 어디일까? 아마도 신문을 가장 빨리 볼 수 있는 기차역 주변이기 십상일 것이다. 그렇다면 철도로 대표되는 근대적 교통망과 그것의 시간에 근대문학은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하는 추정도 가능할 듯하다.

39) 이효덕, 박성관 역, 『표상공간의 근대』(소명출판, 2002), 226~227쪽.

40) 이상은·박천홍, 앞의 책, 127~132쪽.

41) 이광수, 『多難한 半生의 途程』, 『이광수 전집』 T0(삼중당, 1974), 400~401쪽.

2. 시간성⁴²⁾과 예술성, 근대문학의 운명

문학의 환경이 이렇게 바뀌고 보면 그 시간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문학의 내용이나 분량 등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겨난다. 다시 말해 달라진 환경이 문화적 권력을 형성한다는 것이다. <귀거래>의 경우, ‘二.編輯長’ 부분의 공간구조에서부터 이러한 권력관계를 암시하고 있다. 편집장은 우선 이층에 다섯 평 정도의 자기 공간을 가지고 있다. 그는 책상을 앞에 두고 남쪽을 바라보고 앉아 원고들을 검토한다. 그러므로 ‘작자’는 편집장을 마주보기 위해서는 북쪽 벽면을 보아야만 한다. 이런 공간 배치 아래 편집장은 원고를 집어 들고 작자에게 소설의 제목이 이상하다며 불교의 교리에 적합해야 한다는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또한 작자는 이번 월보의 재료가 아주 풍부하다며 편집장의 비위를 맞추고 있기까지 하다.⁴³⁾

이와 같은 현상은 편집장이 시간의 통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편집장은 마감 기일을 지키지 않은 원고는 신지 않을 권리를 지니고 있을 뿐 아니라 이를 근거로 작품의 내용까지 간섭할 수 있다. <귀거래>의 경우 발표된 잡지가 양견식 자신이 깊이 관련하고 있던 『불교진흥회월보』였기 때문에 불교적 내용으로 제한되어 있지만, 잡지의 성격이 이와 다를 경우 작품의 내용에 간섭하는 것은 사뭇 달라질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당시에 성행한 많은 현상모집의 전제 조건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太極學報』15호 권두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실려 있다.

投書注意

- 一. 諸般學術과 文藝 詞藻 統計 等に 關한 投書는 歡迎함
- 一. 政治上에 關한 記事는 一切 受納치 아니함
- 一. 投書의 掲載與否는 編輯人이 撰定함

42) 여기서 ‘시간성’이란 문학의 생산과 유통 및 소비까지를 아우르는 개념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시간성은 근대의 직선적 시간관에 의해서 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

43) 작자와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잡지사 내에서도 공간 구조는 서열을 암시하고 있다. 즉 편집장의 방은 남쪽으로 창이 나 있는 쾌적한 곳이지만 활판직공의 노동공간은 ‘活字臺가 가득 싸인 二層 우에서 먼지를 뒤집어쓰고 바름 혼 점 구경 못’(57쪽)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 一.投書의 添削權은 編輯人의게 在함
- 一.一次投書는 返附치 아니함
- 一.投書는 完結함을 要함
- 一.投書는 縱十二行 橫二十五字 原稿紙에 正書함을 要함
- 一.投書호시는 이는 居住와 姓名을 詳細히 記送함을 要함
- 一.投書當撰호시 이에게는 本報當號 一部를 無價 進呈함⁴⁴⁾

엄격한 의미에서 현상문예라 보기는 어렵지만 독자의 투고를 환영한다는 위 인용에서는 정치상 문제는 투고하지 말 것을 주문하고 있다. 물론 이 당시가 갖가지 금지사항과 발행금지, 정간 등의 행정처분, 언론인에 대한 사법처리 등을 골자로 한 신문지법⁴⁵⁾이 공포된 직후였다는 점을 감안해야만 한다. 따라서 조선인의 정치적 관심은 철저하게 억압될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고 하더라도 투고된 원고의 첨삭권까지 편집인에게 있다고 천명하는 것에서 편집인에게 부여된 권한의 정도를 짐작해 볼 수 있다. 물론 이 당시는 저작권 등의 개념이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제한이 가능했다손 치더라도, 편집인이 원고를 수정하고 첨삭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기하는 것 자체가 작가와 그 '작품'을 인식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편집인의 이런 권한 역시 예사롭게 보아 넘기기 힘들다.

이와 같은 현상은 다른 잡지나 신문 등에서도 흔히 찾아볼 수 있다. 예컨대 『학지광』에서도 '時事政談은 不受'하며 '編輯權限 停載 添削'⁴⁶⁾이라 명기하고 있다. 또 『청춘』7호(1917. 5.)에는 '每號 懸賞文藝爭先應募'와 '特別大懸賞'을 동시에 실시하면서 전자의 경우, 매월 말일까지를 기한으로 하고 있고 같은 면에 인쇄되어 있는 "青春讀者證"을 원고 첫면에 첨부해야만 응모가 가능하다고 제한하고 있다. 그리고 '特別大懸賞'의 경우에는 단편소설을 응모할 때 '학생을 주인공'으로 해야 할 것과 함께 '一行二十三字 五百行' 이내로 분량을 한정하고 마찬가지로 독자증⁴⁷⁾을 붙여야 하며 기한은 '來七月 十五日'까지로 명시해 두

44) 『太極學報』15, 1907. 11.

45) 이 법은 1907년 7월 24일 이완용 내각에 의해 법률 제 1호로 공포된 것이다. 정진석, 앞의 책, 309~310쪽 참조.

46) 『학지광』4, 1915. 2. 57쪽.

47) 독자증은 가로4cm, 세로 3cm 정도의 네모 안에, '一人一次에 一張, 青春讀者證, (懸賞應募七)'이라는 내용이 삼행으로 인쇄되어 있다. 이 독자증을 첨부하도록

고 있다. 『매일신보』 또한 1916년 12월 3일의 ‘新年 文藝募集’에서 단편소설의 ‘時代는 現代에 適한 者’라 하고 ‘來 二十日’까지 원고가 도착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⁴⁸⁾

이처럼 이제 작가는 근대적 시간의 통제 아래 놓여 있는 존재이며 작품 역시 시간성 속에서 존재한다. 뿐만 아니라 매체가 일반적으로 정한 시간까지 제한된 주제의 글을 써야만 하는 현실은 작가들에게 자의식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더욱이 이와 같은 시간성이 작가의 예술적 상상력을 제한할 때 그 자의식은 더욱 심각해질 수도 있다.

「그리 그러면, 二三十줄만 더 쓰면 되겠소. 뜻은 極히 짚르게 꼭 쓴어 암 울니어 讀者를 흥 번 놀리게 하지」

-중략-

作者가 묻저 입을 여러 「엇더호오. 아마 잘못 되앗지……」

안희는 얼굴을 들고 嫣然一笑하며 「이썬것 任子가 지으신 中에 이것이 니 생각에는 그 중 낫소」

作者의 썬은 고만 붉어진다.—그러는 이는 희빛으로 그러흔지도 몰으시—
그러는 눈에는 微笑를 띄웠다.

「응 그리도 무엇 그리 작될 것은 업지」

「안이지오. 事實은 恒茶飯의 이약이지만은 그리도 結構가 巧妙호고 文辭가 清新호고 호흔 진실호은 이약이라 世上에 有志호고 正直호은 讀者가 잇슬 동안에는 이러흔 小說이 有益호지오」

作者는 그 소리에 조금 힘을 어땀던지 「글세 나도 조금 그런 줄은 알지만은 來日이 되면 또 잘못되앗다고 흥는지도 몰노. 아모런던지 編輯長의게 뵈힌 然後에야 알지」

「그러면 編輯長의게 뵈히지 안이하면 判斷치 못호신단 말씀이오」

「안이 그런 것은 안이지만은 모다 보는 사람마다 니가 지은 小說은 무슨

한 것은 물론 상업적 목적이라 할 수 있다.

- 48) 상상해 보자. 전국 각지에서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비슷한 주제로 정해진 시간에 맞추기 위해 글을 쓰고 있는 모습을. B. 앤더슨은 ‘구성원 서로의 마음 속에 교통(communion)의 이미지가 살아있기 때문에 제한되고 주권을 가진 공동체라 상상되는 것이 민족’(B. 앤더슨, 윤희숙 역, 『민족주의의 기원과 전파』(사회비평사, 1996), 21~23쪽)이라 정의한다. 여기에는 신문이나 소설 등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이 경우 민족을 상상하는 사람들은 독자들이다. 그런데 1910년대를 전후하여 시행된 현상모집에서 우리는 독자가 아니라 ‘민족’ 생산해 내는 작가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다.

意味인지 알 수가 없다. 허닛가 그리. 編輯長이 는보고 잘 되었다 하면 잘 된 줄 안다. 허는 말이오.

작자의 안회는 男便을 위하야 憤然히 말을 한다. 『朝鮮스람 程度에 무슨 文學을 알겠소. 그저 쓸디업는 이야기는 느러 노흐면 小說노 알지.』

『그러기에 나도 이 다음부터는 不得已호 境遇外에는 짓지 안이홀 作定이 오. 그러는 이번 것은 關係치 안케 되었다지.』

『네 잘 되었다세오. 滋味잇세오.』

『그것은 그릇커니와 이 小説은 敎理에 當호 善과 惡을 말하얏거니와 곳 티여 讀者에게 그 寓意를 알니게 할 것은 업지.』

『그렇치오. 소설이라 하는 것은 勸善懲惡을 뛰여나케 하야야 하는 것인즉 이를 暴露하기까지 하는 것은 아조 滋味 업지오. 그러는 이番 小說에 主人公은 描寫가 다 잘 되었다세오. 男子는 當當호 紳士로 大丈夫다옴고 女主人公은 一層 더 柔順 호고 安靜하야 참 婦人이라 이르켓던 걸이오.』⁴⁹⁾(강조-인용자)

다소 길어졌지만 위의 인용문에는 당시 작자가 지녔던 문학관이나 독자에 대한 생각, 편집장과의 관계 등이 고스란히 나타나 있다. 여기서 작가는 아내의 입을 빌어 소설이 권선징악을 내용으로 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그것을 직설적으로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예술적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결구의 완결성이나, 문장의 세련됨, 삶의 진실성 등이 중요한 예술적 의장이라고 말하고 있기도 하다.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조선에는 아직 이를 제대로 알아줄 만한 독자가 형성되지 않았다고 인식한다는 점, 그리고 작품의 게재권한을 쥐고 있는 편집장과의 긴장관계이다. 독자에 대한 불만은 근대적

49) <귀거래>, 『불교진흥회월보』, 54~56쪽. 작자가 아내에게 소설을 불러주고 이를 받아쓰게 하는 이 장면은 사실 구술성(口述性)의 흔적일 수도 있다. 실제로 최근의 한 소설에서는 작자와 창준(唱準), 그리고 각수(刻手)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김탁환, 《방각본 살인사건》상(황금가지, 2003), 236~237쪽 및 290~291쪽, 하, 56~57쪽 참조)이 있어 매우 흥미롭기도 하다. 그런데 위에서 인용한 장면의 경우, 구술성을 부정할 수는 없겠지만 작자가 아내를 등장시키지 않았을 경우 문학에 대한 생각들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었을까 하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작품이 창작된 시기가 1915년이고 보면, 또 소설을 통하여 자신의 문학관을 드러내는 형태의 작품이 처음으로 씌어지는 것이라면, '아내'라는 존재를 설정해야만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면 위 장면은 작자 자신의 문학관을 드러내기 위한 장치로서의 의미도 크게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학교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등장했다고는 하지만 작가가 기대하는 만큼 독자들의 문학적 소양이 성숙되지 못했다는 인식의 결과일 것이다. 아무리 근대식 학교가 등장하고 지식인 독자가 탄생하였다고는 하지만 당시의 문학적 상황이 본체도에 올랐다고 보기는 어려운 만큼 작자의 독자에 대한 불만이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작자가 독자의 문학적 소양에 대해 느끼는 불만은 당시만의 독특한 현상만은 아니다. 어느 시대든지 작가는 독자에 비해 지적으로 우월하다는 의식을 지닐 수 있으며 이 때문에 갈등을 느낄 수 있다. 오늘날이라고 해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보면 정작 본질적인 것은 편집장과의 긴장관계이다. 작자의 입장에서 볼 때, 한 매체의 편집장이라면 일반적인 독자와는 달리 문학적 소양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고 기대할 수 있다. 그래야만 작품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고 작가와 생산적인 토론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작자가 보기에 편집장은 역시 그 매체의 목적만을 염두에 두고 있을 뿐이며 정작 중요한 작품의 예술적 완성도에는 관심이 크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집장에게는 막강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으며 이 때문에 작자는 아내에게 지청구를 들을 만큼 편집장을 의식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편집장은 근대문학의 시간성에서 핵심적인 인물이기 때문이다.⁵⁰⁾

한편으로 작자는 자신의 이번 작품에 상당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작품에 대한 작자의 자부심은 아내와의 문답내용에서뿐만 아니라, 이 잡지의 내용이 전반적으로 어렵지만 ‘그 中에다 小說도 이렇케 어렵’⁵¹⁾이라고 불평하는 활판직공의 모습에도 투영되어 있다. 활판직공의 경우 쉽고 자주 쓰이는 글자가 많을수록 효율적이겠지만, 이 ‘작자’의 소설에는, 잘 쓰지 않는 어려운 글자가 많은 것이 불만이다. 이것은 작자가 매우 신중하게 어휘를 선택했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작자의 문학적 자부심은 대단하지만 편집장에게 이것은 그리 중요한

50) 물론 ‘편집장’ 역시 근대적 시간의 통제를 받는 인물이며, 그 뒤에는 자본의 회전기간을 가속하려는 ‘자본주’가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편집장은 작가들과는 대립되는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 그리고 작가들이 실제적으로 접촉하는 인물이 편집장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작가의 입장에서 보면 편집장은 ‘시간성’의 핵심적인 인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51) 같은 책, 57쪽.

문제가 아니다. 편집자에게는 잡지의 목적과 시간성에 부합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므로 작품을 신문이나 잡지에 실어야만 하는 '작자'는 이와 같은 현실적 욕구와 자신의 예술적 욕망 사이에서 갈등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갈등이 작자 개인을 넘어 근대문학의 본질적 특징이지 않을까? 더욱이 시간성이 작품의 상품성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면 서로 대립하는 두 속성의 길항은 근대문학의 운명인지도 모른다. '작자'의 자의식은 여기서부터 비롯된다. 이렇게 보면 작자가 이제부터 '不得已 境遇外에는 짓지 안이 作定'이라 말하는 것은, 그가 두 속성의 길항을 충분히 의식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표지라 해석할 수 있다. 둘 사이의 조화를 추구하는 것은 만만찮은 작업이기 때문에 더욱 신중한 태도로 창작에 임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일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번 것은 關係치 안케 되었'다고 하는 언급은, 이번 작품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이끌어냈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작품의 곳곳에서 느껴지는 그의 문학적 자부심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이와 같은 갈등과 자의식⁵²⁾이 <귀거래>를 창작하게 한 근본 원인일 것이라는 역설 또한 가능해진다. 또한 여기서 보여준 시간성과 예술성의 길항은 시대에 따라 모습을 달리하면서 반복적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귀거래>는 우리 근대문학의 운명을 암시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IV. 마무리

시간을 직선적인 것으로 사고하는 근대적 관념은 인간의 삶과 문학에 근본적인 변화를 불러온다. 자본주의의 발달과 철도와 우편 등으로 인해 통일되고 규격화된 시간은 학교 등의 제도를 통해 유포되면서 근대인의 일상적인 삶에 통제력을 행사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은 우리 근대문학에도 예외가 아니어서 신문, 잡지 등 저널리즘을 기반으로 하는 근대문학의 존재조건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근대적 시간관념과 그 통제 속에서 작가와 독자가 탄

52) 이와 같은 자의식은 또 소위 '예술가소설'을 나타나게 하는 기본적 바탕이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생하고 작품 역시 저널리즘의 시간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문학은 고소설의 일반적인 생산방식인 방각본 등의 형태와 절연하게 되고 문학 속의 근대인 역시 미래로 향해서 내달리기만 하는 시간 속에서 긴장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짧은 시간 안에 생산 및 유통, 그리고 소비까지 이루어져야 하는 문학적 상황은 속도를 대표하는 철도 등의 근대적 제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시간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문학의 유통공간 역시 정장이 설치된 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될 수밖에 없다고 할 수 있다.

근대적 시간에 의해 변화된 문학적 상황은 양건식의 <귀거래>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1915년에 창작된 이 작품은 작가, 편집장, 활판직공, 비평가 등의 관계에서 문학의 존재형식을 탐색하고 있는 획기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시간의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편집장과 작가의 긴장관계, 당시 문학적 상황에서 독자에 대한 인식, 작품의 미적 의장에 대한 인식과 유통의 과정까지 드러내고 있는 이 작품은 그만큼 문제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와 같은 근대적 시간성은 작가들의 문학적 자의식을 자극하는 기제로도 작용한다. 그래서 근대의 작가들은 시간성과 예술성 사이에서 갈등하게 되고 1910년대에 이르면 <귀거래>와 같은 작품을 생산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시간성과 예술성의 길항은 근대문학의 운명과도 같은 것이어서 우리 문학사에 지속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 글에서 다루지 못한 문제가 더 많이 남아 있다. 이 글은 <귀거래>를 중심으로 근대적 시간이 문학에 작용하는 방식을 추적해 보려 했기 때문에 연구의 폭과 깊이에서 한계를 안고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애국계몽기 이후의 구체적인 문학작품들에서 근대적 시간은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하는 점을 따지지 않으면 이와 같은 논의가 공허해질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의 과제로 남겨 두고자 한다.

주제어 : 시계적 시간, 근대적 시간관념, 근대적 독자, <귀거래>, 저널리즘, 유통제도, 철도, 시간성, 예술성, 예술적 자의식

참고문헌

- 『每日申報』, 『青春』, 『佛敎振興會月報』, 『漢城旬報』, 『獨立新聞』, 『협성회회보』, 『미일신문』, 『이광수 전집』(삼중당, 1974.), 『太極學報』, 『學之光』
- 김근수, 『武斷統治時代의 雜誌概觀』, 『韓國雜誌概觀 및 號別目次集』, 한국학연
구소, 1988.
- 김복순, 『1910년대 한국문학과 근대성』, 소명출판, 1999.
- 김진균·정근식 편저 『근대주체와 식민지 규율권력』, 문화과학사, 1998.
- 김탁환, 《방각본 살인사건 상, 하》, 황금가지, 2003.
- 민두기, 『시간과의 경쟁』,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2.
- 박정규 외, 『한국 근대사회의 변화와 언론』,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5.
- 박전홍, 『매혹의 질주, 근대의 횡단』, 산처럼, 2003.
- 史在東, 『古小說 板本の 形成・流通』, 한국고소설연구회 편, 『古小說의 著作과
傳播』, 亞細亞文化社, 1994.
- 徐光云, 『韓國신문소설사:1889~1970』, 해돋이, 1993.
- 소광휘, 『시간의 철학적 성찰』, 문예출판사, 2001.
- 유영대, 『완판방각본 소설의 서지와 유통』, 한국고소설연구회 편, 『古小說의 著
作과 傳播』, 亞細亞文化社, 1994.
- 이재봉, 『간접적 근대체험과 서사의 화법』, 『문창어문논집』39, 문창어문학회,
2002. 12.
- 이재봉, 『근대적 욕망의 추구와 서사화 방식』, 『어문연구』41, 어문연구학회,
2003. 4.
- 이진경, 『근대적 시공간의 탄생』, 소명출판, 2002.
- 李稔憲, 『京板坊刻小說의 商業的 性格과 異本出現에 對한 研究』, 한국고소설연
구회 편, 『古小說의 著作과 傳播』, 亞細亞文化社, 1994.
- 정진석, 『한국언론사』, 나남, 1990.
- 조남현, 『한국 근대소설 형성 과정과 작가의 초상』, 구모룡 외, 『현대 한국문학
100년, 20세기 한국문학 어떻게 볼 것인가』, 민음사, 1999.

- 최기영, 『대한제국시기 신문연구』, 일조각, 1991.
- 마키 유스케, 최정옥 · 이혜원 · 박동범 역, 『시간의 비교사회학』, 소명출판, 2004.
- 馬越 徹, 『韓國近代大學の成立と展開-大學モデルの傳播研究』, 名古屋大學出版會, 1995.
- 이효덕, 박성관 역, 『표상공간의 근대』, 소명출판, 2002.
- B. 앤더슨, 윤형숙 역, 『민족주의의 기원과 전파』, 사회비평사, 1996.
- C.J. Whitrow, 이종인 역, 『시간의 문화사』, 영림카디널, 1999.
- C. Wilson 편저, 권오천 · 박대희 역, 『시간의 발견』, 한양대학교 출판원, 1994.
- L. Mumford, *Technics and Civilization*, London:Routledge & Kegan Paul, 1934.
- 로버트 레빈, 이상돈 역, 『시간은 어떻게 인간을 지배하는가』, 황금가지, 2002.
- S. McCready 편, 남경태 역, 『시간의 발견』, 휴머니스트, 2002.
- <http://www.korail.go.kr/2003/100th/year/index1.html>.

<Abstract>

The Idea of Modern 'Time' and the Existing
Way of Literature
-Focusing on Yang Keon-sik's *Kuy Keõ Rae*

Lee, Jae-Bong

The idea of modern time articulated with 24 hours a day has brought radical changes in people's society and life. This is true of our modern literature in which the idea of modern time have had powerful influence on the existing conditions of modern literature based upon such journalism as newspaper, journal and so on. The modern people described in literary works can not help having very tense life in the time relentlessly running toward the future. The literary situations should be produced, circulated and consumed for very short term. In particular, this situations have to take up the temporality relying upon such modern mechanism as railway, and the circulation space of literature is shaped around the district of railway stations or transportation crossroads as well.

This characteristics of modern literature function as a moment stimulating writers' literary self-consciousness. The modern writers was are wandering between temporality and literariness. The work of *Kuy Keõ Rae* was created in this situations. The negotiations between temporality and literariness were the crucial topic of our modern literature and even now remain as an essential theme in our literary history.

Key Words : the time of clock, the idea of modern time, modern reader, *Kuy Keõ Rae* journalism, postal system, railway, temporality, literariness, literary self-consciousness.